

# “美 대선 등 정세 유동적... 국익기반 외교 지속”

### 서훈 靑 국가안보실장 “주변 4강 등과 협력 외교 추진 한반도 비핵화 합의 실질 진전에도 약속 이행 어려움 남북, 유관국과 합의 사항 조속 이행환경 조성할 것”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4일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주변 4강 등 관련국과의 협력 외교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내년 1월

에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한반도 주변 정세의 유동성은 어느 때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실장은 지난 3년 간 한반도 평화 추진 노력과 관련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실



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약속들을 온전히 이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돌아봤다. 서 실장은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남북과 유관국이 함께 합의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과 국제사회가 신뢰

와 협력을 통해 여러 장애물을 넘어 평화를 공고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서 실장은 “최근 서해 수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격사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발생해서는 안 될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굳건한 평화를 지켜내려면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강한 국방력도 필수적”이라며 “국방 분야에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우리 군이 미래강군으

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면 굳건한 한미 동맹이 확인되고,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지지를 확보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부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통화 등 추후 수반되는 외교 일정 여부에 대해 서 실장은 “외교적 관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상) 통화도 있고, (당선) 축하 메시지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김희수 도의원 “탄소산업 진흥원 전북지정 환영”



지난 6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지정을 축하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김희수 교육위원장은 4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대한민국 탄소산업 종합컨트론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제3차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의결했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이 씨앗을 뿌리고 가꿔온 탄소산업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됐다”면서 “정부가 전북을 대한민국 탄소수도로 인정한 쾌거이며, 이제 전북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지가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탄소산업 인프라를 개척하고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온 전북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고, 해당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도의회를 통과해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보내졌다. /유호상 기자

## 2020 美 대선... 바이든 “끝난게 아냐” · 트럼프 “사실 이겼다”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3시 30분경(한국시간),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아내 질 바이든이 함께 한 가운데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 이겼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 전북도 군산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북도의회는 4일 김경숙 전북도 군산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7명(이병철, 김대오, 김만기, 나기학, 진형석, 황영석)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이한기, 조동영, 최영일)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인사,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보고에 이어 도덕성 검증(오전-비공개)과 업무능력 검증(오후-공개),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비공개로 진행된 도덕성 검

증에서는 전주시 보건소 소장 시절 10개월간의 장기 교육 중 임무 공백으로 인한 감사지적사항 확인, 코로나 19 급속전파시기 직전 조기퇴직 사유, 자녀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재산형성과정 및 내용, 후보자 개인 봉사경력 및 자발적 기부내역 확인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윤리 의식을 파악하고,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했다. 오후에는 공개회의로 전환, 후보자의 자질과 군산의료원 운영방식, 사업 및 조직관리, 윤리적 경영 및 각종 공공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에 초점을 맞춘 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이 이루어졌다. /유호상 기자

### 최영심 도의원, 도내 방과후 강사 처우 개선 간담회 열어



4일 전북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 주최로 ‘도내 방과후 강사 처우개선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방과후강사 40여 명과 전북도 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방과후학교 운영과 방과후강사 처우개선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방과후 강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수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대책을 요청했고, 도교육청은 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신청자는 소수에 그쳐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강사들은 말했다.

한 방과후강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중단은 강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면서 “선금지급은 조삼모사에 불과한 지원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 강사들은 학교장 등의 부당한 대우가 있어도 다음 계약에 문제가 생길까 아무런 말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강사료 기준 역시도 도교육청 지침상 시간당 3만2천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간당 1만9천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 학교마다 강사료 기준을 천차만별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계약주체를 도교육청으로 변경해 운영과 관리에 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등 또한 요청했다.

최영심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마저 위협당했던 강사분들의 아픔을 기억한다”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민주 신영대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4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영대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한국 GM의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군산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이 차례로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유동성·일자리 등을 지원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 내 기업을 신설 및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국유재산 임대 대부금액으로 지불한 금액이 45억원(총 면적 600㎡)에 달한다”면서 “산업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의 신·증설의 결림돌로 꼽히는 공장임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수홍, 김정호, 서삼석, 신정훈, 위성근, 이개호, 이동주, 이장섭, 한병도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민주주의 원동력 토론문화 만들어요’

### 완산선관위, 신홍고서 토론회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미래유권자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3일 전주신홍고등학교에서 신홍고 1·2학년 26명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실시했으며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무투표제 도입여부 ▲청소년 모의투표 필요성 ▲코로나19 시대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떤 정책을 제안할 것인가에 대해 열린 토론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문 디베이트 강사가 토론회의 멘토로서 제반 지식에 대한 사전 강의 및 토론을 적극 지원해 한층 토론회의 완성도를 높였다. /김윤삼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축! 전주매일 창간



# 전주현대옥

JEONJU HYUNDAI OK  
Korean Restaurant Since 1979

## 가맹비 등 3無 면제

### 가맹점 대모집

- \* 전북 · 전남 · 광주지역은 제외
- \* 자세한 내용은 '현대옥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현대옥 검색**



이 사진은 별도 판매의 '오징어사리'가 반영된 것 입니다

☑ 창업은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 2020년 11월 현재의 현대옥 전체 가맹점 중 5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이 80% 차지

☑ 배달판매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 매장영업 + 국밥 배달 + 족발 보쌈 닭볶음탕 배달

식당성공은 '수오지심'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현대옥 홈페이지 -> 자료실 -> '현대옥에서 드리는 글' 참조]

전주현대옥 프랜차이즈